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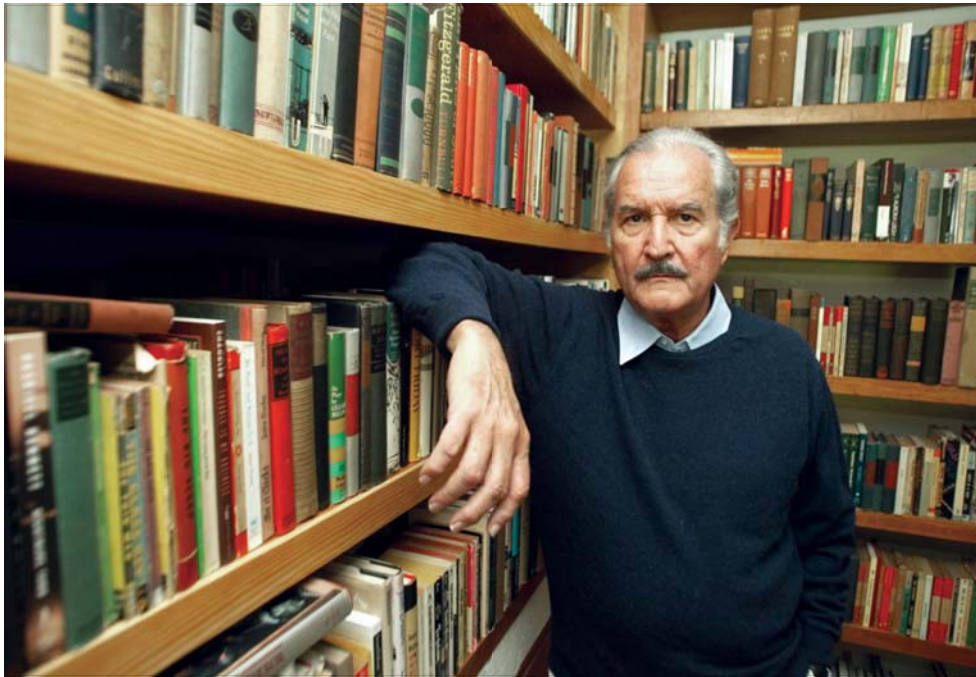
삶의 거울, 작품의 거울을 통해서 본 카를로스 푸엔테스

클라우디아 마시아스 데 윤

카를로스 푸엔테스(1928~2012)가 죽었다. 그는 4년 전에 마치 예언자처럼 단언했다. “내 생각에 멕시코시티는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면도날 위에 있는 형국이다.” 푸엔테스는 가장 많이 번역되고, 비판 받고, 읽힌 멕시코 작가이다. 위대한 작가들이 그렇듯, 푸엔테스의 삶과 작품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거울은 황금보다도 더 소중한 정체성을 포착”하거늘, 그렇다면 푸엔테스는 어떤 거울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았을까? 에미르 로드리게스 모네갈은 일찌감치 1963년의 어느 비평에서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La muerte de Artemio Cruz)이 “거울을 마주한 세 사람 사이의 대화, 삶을 형성하는 세 가지 시간의 대화이다”라고 말한다. 이 인용문 구절에서 힌트를 얻어, 이 글에서는 푸엔테스의 인터뷰, 작품, 에세이를 돌아보면서(이는 작가 푸엔테스와 인간 푸엔테스를 기리는 재독서 작업이다) 인간, 작가, 비평가로서 면모를 다룰 것이다.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생식 열정’

1934년 8월 12일, 아르테미오 크루스는 라우라의 아파트에서 수화기를 통해 들리는 목소리가 아내 카탈리나의 목소리임을 알아챈다. 그 후 아르테미오는 말한다. “아내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착각이다. 카탈리나는 알고 있다.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또



카를로스 푸엔테스(1928~2012)

한 알고 있다. 자신만이 정식 부인이라는 것을. 라우라는 자신과 부인 사이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아르테미오 크루스가 대답한다. “나는 당신을 속이지 않았어. 당신을 강제하지도 않았고.” 1947년 9월 11일, 릴리아와 아카폴코에 있었다. 아르테미오 크루스는 “휴가용 계집을 원했다. 계집을 얻었다. 월요일에 다 끝나고,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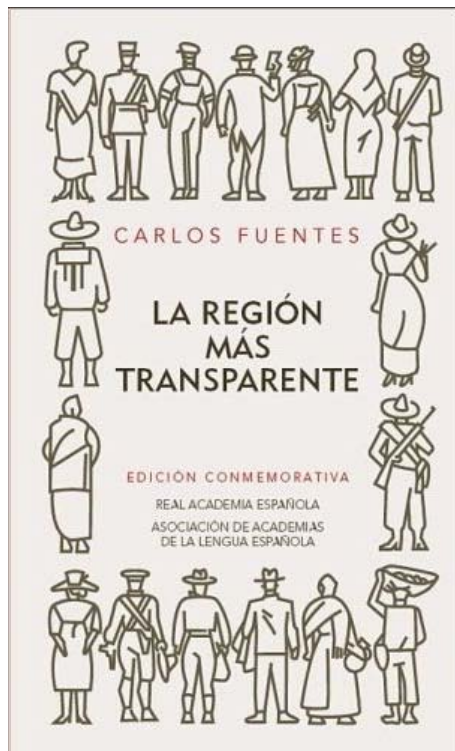
1962년은 카를로스 푸엔테스에게 멋진 해였다. 『아우라』(Aura)와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 같은 대표적인 소설을 냈고, 딸 세실리아가 태어났다. 멕시코 여배우 리타 마세도(영화감독 부뉴엘이 선호하던 배우였다)와 결혼해서 1969년 이혼할 때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살았다. 이혼은 두 사람의 활동과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바람기 때문이다. 세실리아는 이렇게 회고한다. “아버지는 늘 애인이 많았죠. 엄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었습시다. 아버지 애인의 전화를 받아 바꿔드리는 일이 내게는 다반사였죠. 이

혼은 그저 한 가지 변화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귀가하지 않게 된 거죠.” 엑토르 아길라르 카민에 따르면 아르테미오 크루스는 “생생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다. 모든 차원에서 푸엔테스만의 개인사가 담겨 있다. 출신과 사랑, 승리와 패배, 공적 역사와 사적 역사 등등 아주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푸엔테스는 죽기 전날에도 1943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의 사랑을 기억했다. “나보다 나이가 두 배나 많은 이웃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소. 나는 열다섯 살, 그 여자는 서른 살. 그 때로 돌아갈 때마다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오. 다시 열다섯 살이 되어, 내 앞에 그 프랑스 여자가 있는 것 같소.” 푸엔테스는 단언한다. “그 여자 남편이 하루 종일 영화만 찍어서 내 사랑은 받아들여졌소.” 그러나 파리에서 제임스 포트슨과 대화를 나눌 때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여인은 오직 둘뿐이었다고 말한다. 첫 부인 리타 마세도와 1972년에 결혼한 실비아 레무스이다.

푸엔테스에게 사랑은 창작의 동력이었고, 글의 메타포였다. 그래서 결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종이 위에 펜을 끄적거릴 때의 관능성을 대체할 것은 결코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로드리게스 모네갈은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대지와 성교는 푸엔테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식 열정(*pasión genésica*), 또 삶의 원천과 국가를 소유하려는 자궁 망상(*delirio uterino*)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화적 바탕이라고 해석한다. “카를로스 푸엔테스에 의해 언어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뜨거운 신화적 내면까지 창조되고 재창조된 멕시코”에 대한 자궁 망상 말이다.

익스카 시엔푸에고스의 반향

『세상에서 가장 맑은 지역』(*La región más transparente*, 1958)의 익스카 시엔푸에고스는 어떠한 권위에도 굴하지 않는다. “노동자, 농민,



『세상에서 가장 맑은 지역』 50주년 기념판

자본가, 지식인, 전문직업인, 심지어 디에고 리베라까지 모든 이를 끌어당기는” 새로운 정부를 고발한다. 지식인의 제도권화를 고발하는 것이다. 가장 명백한 사례가 훗날의 옥타비오 파스일 것이다. 1950년부터 친교를 맺은 파스는 1967년에 이르면 푸엔테스의 장편소설 『세상에서 가장 맑은 지역』을 극찬한다. 이 소설에서 푸엔테스는 자신을 신화적 주인공 수준으로 격상시켰기에, 파스는 익스카 시엔푸에고스가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가면이기도 하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멕시코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파스는 1990년에 푸엔테스와의

우정을 공개적으로 깨뜨린다. 파스는 문학잡지 『부엘타』(Vuelta)를 통해 엔리케 크라우세와 ‘자유의 경험’이라고 이름 붙인 대회를 조직했는데, 푸엔테스는 명단에서 빠진 반면 페루 대선에서 패배한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는 초대된 것이다. 파스는 “압제자들의 지지자였다”는 이유로 푸엔테스가(그리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도) 참가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푸엔테스는 1992년의 ‘겨울 콜로키움’(Coloquio de Invierno)에서 파스를 빼버리는 것으로 응수한다. 로베르토 볼라뇨는 말년의 어느 인터뷰에서 푸엔테스와 파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한 사람은 “차르, 또 한 사람은 차레비치였다.¹⁾ 두 사람은 서로 무척 좋아했다. 나는 푸엔테스가 아직도 파스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푸엔테스가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면 그렇다는 말이지만, 이건 다른 주제의 이야기이다. 파스는 아마 과

1) 차레비치는 차르의 아들 중 황태자를 가리킨다—옮긴이.

거에는 푸엔테스를 좋아했을 것이다. 파스가 언젠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렇다는 말이지만, 이 역시 다른 주제의 이야기이다.”

푸엔테스의 반항은 마누엘 사마코나를²⁾ 암살한 사람의 말에 표현되어 있는 듯하다. “유리 눈알”을 지닌 그 남자는 “누구도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아”라고 말했다.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초록색 눈, 아우라의 초록색 눈, 익스카 시엔푸에고스의 “돌 독수리이자 하늘을 나는 뱀의 눈”. 푸엔테스는 늘 눈에 대해 표현한다.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앙심

칠레 작가 호르헤 에드와르즈는 옥타비오 파스의 초대로 1990년 ‘자유의 경험’ 대회에 참가한 칠레 작가 호르헤 에드와르즈는 1992년에 쓴 글에서 카를로스 푸엔테스와 사이가 소원하게 된 일을 공개했다. 에드와르즈는 푸엔테스의 부재를 부각시킨 다음에, “얼마 전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칠레에 왔다. [...] 푸엔테스는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에게 결코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말한다. 에드와르즈는 쿠바혁명을 비판한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 1973)을 출판한 이후, 정치적 견해 차이로 푸엔테스와 소원하게 된 상태에서 1990년대까지 이르렀다. 에드와르즈는 “마드리드의 어느 여기자가 어리벙벙하고 부정확하게 읊긴 내 몇 가지 문학적 발언”에 대해 “정과 우정이 담긴 해명의 전갈”을 보냈는데, 기대와 달리 “아무런 답도 얻지 못했다.” 푸엔테스의 부고 관련 글에서 에드와르즈가 밝히듯이, 화해는 “얼마 전”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닌 듯싶다. 푸엔테스는 2011년에 출판한 『라틴아메리카의 위대한 소설』(La gran novela latinoamericana)에서 호르헤 에드와르즈에게

2) 마누엘 사마코나(Manule Zamacona)는 『세상에서 가장 맑은 지역』의 등장인물이다 —옮긴이.

돌아가야 할 페이지를. 작가보다는 정치 평론가로 더 유명한 페데리코 레예스 에를레스에게 할애한 것이다. 에드와르즈는 “사파야르에는³⁾ 묘 자리가 별로 남지 않았다. 아마 에드와르즈는 자신의 묘를 마련해 놓았을 것이다”라는 언급에 만족해야 했다.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로베르토 볼라뇨를 결코 좋게 보지 않았다. 볼라뇨가 아주 무죄는 아니리라. 2003년 볼라뇨의 발언에서 푸엔테스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 “당신[볼라뇨]은 파스의 멕시코성 편인가요 아니면 푸엔테스의 보편주의 편인가요?”하는 질문에, “내 생각에는 옥타비오 파스가 더 보편적입니다”라고 볼라뇨는 대답했다. 파스를 선호한 것으로도 모자라 볼라뇨는 위대한 소설가의 작품에 무관심한 태도까지 보인다. “오래전부터 푸엔테스 작품은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푸엔테스는 볼라뇨가 자신을 파스의 차레비치라고 명명한 사실은 알고 있었을까? 『라틴아메리카의 위대한 소설』에 볼라뇨가 빠진 이유를 묻자 푸엔테스는 “그의 글을 읽은 적이 없어서요.”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카를로스 푸엔테스, ‘내 방식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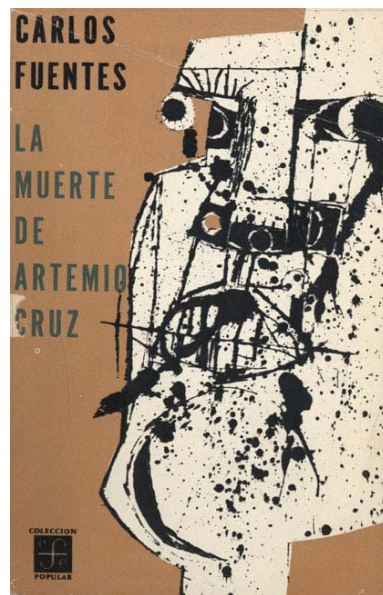
어머니 리타 마세도처럼 배우인 홀리사(카를로스 푸엔테스가 아닌 첫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딸이다)는 푸엔테스가 좋아하는 노래가 「내 방식대로」(A mi manera)라는 유행가였다고 기억한다. 이 제목은 마치 그의 행동수칙 같다. 2003년부터 푸엔테스는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책 50선에 손을 대 적어도 15권의 작품을 배제시켰다. 그 중에는 『세르반테스 혹은 독서 비평』(Cervantes o la crítica de la lectura, 1976), 『모든 행복한 가족들』(Todas las familias felices, 2006), 『불안한 동거』(Inquieta compañía, 2004), 『블라드』(Vlad, 2010)⁴⁾ 등이 있다. 우리로

3) 사파야르(Zapallar): 칠레의 부유층이 많이 찾는 리조트가 있는 지방 이름—옴긴이.

4) 드라쿨라의 모델이 된 백작—옴긴이.

서는 결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것이다.

푸엔테스는 어떤 소설을 좋아했을까? 『세상에서 가장 맑은 지역』이었을까 아니면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이었을까? 그는 “내게는 ‘시간의 나이’(Edad del Tiempo)라는 단 하나의 소설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내 모든 소설이 담겨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작품도 있고, 씁쓸한 작품도 있고, 약간 모자란 작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모든 작품을 똑같이 좋아합니다”라고 말한다. ‘시간의 나이’란 푸엔테스가 홈페이지에 작품을 배치해 놓은 카테고리 제목이다. 푸엔테스 작품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 초판본 (1962년) 표지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소설은 『세상에서 가장 맑은 지역』(1958),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1962), 『아우라』(1962), 『허물벗기』(Cambio de piel, 1967)이다. 『세상에서 가장 맑은 지역』은 뉴욕, 파리, 오슬로, 스톡홀름, 프라한, 바르샤바에서 출판되었다. 가장 많이 번역된 작품인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은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 코펜하겐, 프라하, 모스크바, 부쿠레슈티, 바르샤바, 자그레브, 암스테르담, 리우데자네이루, 스톡홀름, 오슬로, 슈투트가르트, 동베를린, 서울에서 출판되었다. 『아우라』는 뉴욕, 런던, 파리, 슈투트가르트, 암스테르담, 리우데자네이루, 밀라노, 서울에서 출판되었다. 『허물벗기』는 뉴욕, 런던, 파리, 슈투트가르트, 밀라노, 코펜하겐, 헬싱키에서 출판되었고, 스페인에서는 세익스 바랄 출판사의 ‘비블리오테카 브레베 상’을 받았지만 판금되었다. 나머지 작품은 이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뉴욕, 런던, 파리, 슈투트가르트, 바르샤바에서 출판된 『우리들의 대지』(Terra Nostra, 1975)와 바르셀로나, 뉴욕, 파리, 스톡홀름에서 출판된 『히드라의 머리』(La cabeza de la hidra,

1978)를 제외하면 말이다.

푸엔테스는 어쩌서 그렇게 많은 작품 제목들을 예고했을까? 2004년부터 일곱 작품이 ‘집필 중’이었는데, 8년 동안 단 한 작품도 출간하지 않았다. 푸엔테스가 좋아한 영웅에게 바치는 작품조차 말이다. “나는 늘 사파타의 마지막 날에 대해 쓰고 싶었습니다. 『치나메카의 에밀리아노』라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팔로우(Pedro Angel Palou)라는 젊은 작가가 출현해 사파타에 대한 뛰어난 소설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 그 작품이 망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작품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죠.”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푸엔테스처럼 “후배 문인에게 신경을 쓰고 너그러운” 사람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무명이었을 때처럼 팔에 미출간 원고를 하 세월 끼고 다니던 젊은이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출판인과 전쟁을 벌이는” 푸엔테스를 보았다고 회고한다. 두 가지 점이 두드러진다. 타인의 작품에 대한 존중과 젊은 작가에 대한 지원 의지이다.

확실히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그들을 돕는다. 그러나 또한 그들을 선별하고 ‘자기 방식대로’ 묶는다. 가령 ‘크랙’(Crack) 작가들이 그런 경우이다. 푸엔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단히 활기 찬 새로운 멕시코 작가 세대가 있다. 크리스티나 리베라 가르사, 호르헤 볼피, 이그나시오 파디야, 하비에르 벨라스코 등이 포함된 크랙이라 불리는 세대이다.” 그러나 하비에르 벨라스코나 크리스티나 리베라 가르사는 크랙 그룹의 일원이 아닌데도 동일한 이름으로 묶고, 마지막 책인 『라틴아메리카의 위대한 소설』에서 “크랙 그룹은 호르헤 볼피, 이그나시오 파디야, 페드로 앙헬 팔로우, 엘로이 우로스, 크리스티나 리베라 가르사이고 하비에르 벨라스코 역시 그들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새로이 세례를 주고 있다.

또한 푸엔테스는 ‘자기 방식대로’ 스페인 작가 후안 고이티솔로를 스페인어권 아메리카(Hispanoamérica) 소설가에 포함시켰다.⁵⁾ 친구이기

5) 1969년에 출판한 평론서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의 새로운 소설』 (La nueva novela

때문이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푸엔테스는 그런 엄청난 일을 반복했다. 또다시 고이티솔로를 『라틴아메리카의 위대한 소설』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후안 고이티솔로, 기피인물」이라는 장(章) 전체를 그에게 바치고 있다. 에드와르즈의 저서, 즉 두 사람 사이를 소원하게 만든 책인 『기피인물』을 연상시키는 제목의 이 장(제20장)은 1969년 자신에게 가해진 비판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다. “곧 비난이 쏟아졌다. 코르타사르, 가르시아 마르케스, 카르펜티에르, 바르가스 요사 같은 순수한 혈통의 우리 작가들 사이에 ‘가추핀’⁶⁾이 웬 말이나는 비판이었다.” 푸엔테스의 대답은 직설적이고 도전적이다. “나는 두 가지 일을 했을 뿐이다. 첫째, 우리는 순수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순결하기는커녕 (스페인인과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인은) 서로 형제이고 서로 닮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켜주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항상 고이티솔로(Goytisolo)의 친구였던 푸엔테스는 60년 우정을 요약하기 불가능했는지 “고이티솔리다리오, 고이티솔리타리오”(Goytisolidario, Goytisolitario)라고 적고 있다.

박복한 작가

구스타보 사인스(Gustavo Sainz)는 푸엔테스를 네 개의 동사로 정의한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많이 쓰고,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여행할 수 있을까?” 푸엔테스는 밝힌다. “나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말하고 글을 쓸 줄 안다. 그리고 이탈리아어와 포르투갈어를 할 줄 안다.” 엑토르 아길라르 카민은 『세상에서 가장 맑은 지역』의 출간 때부터 푸엔테스가 받은 비난을 나열한다. “웃을 잘 입고, 영어를 하고, 후안 룰포처럼 쓰지 않고, 호세 레부엘타스처럼 정치적으로 활

hispanoamericana)에서 푸엔테스는 고이티솔로를 다루고 있다—옮긴이.

6) 가추핀(gachupín): 식민 시대 스페인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옮긴이.



‘봄에서 부메랑으로’, 2004년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의 카를로스 푸엔테스

동하지 않고, 라틴아메리카 소설의 파렴치한 흥행사이고, 외국에서만 호의적인 비평이 쏟아질 뿐 멕시코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 멕시코를 경멸해서 멕시코에서 살지 않고, 파나마에서 출생해 어릴 때 미국에서 공부해서 멕시코인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등등이다. 푸엔테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곤 했다. “나는 늘 자신감이 충만했다. 그래서 교묘한 현학자들과 위선자들의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이따금 곤욕을 치른다.” 그러나 멕시코에서만 박복한 것은 아니어서 적지 않게 무시를 당해야 했다.

푸엔테스는 2004년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에서 ‘봄에서 부메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볼피, 파디야, 팔로우, 리베라 가르사, 벨라스코 그룹을 소개한다. 이미 2002년에 같은 제목을 사용해서 볼피, 파디야, 팔로우를 소개한 바 있다.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과 『아우라』 출간 40주년을 맞아 브라운 대학에서 그에게 오마주를 바친 자리에서였다. 푸엔테스의 ‘봄에서 부메랑으로’라는 명명은 실패한다. 그러나 비평가로서 푸엔테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그룹에 ‘크락’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선호하는 작가들을 여기에 포함시킨다. 『라틴아메리카의 위대한 소설』에서 이들 모두에게 상당한 분량의 페이지를 할애한다. 특히나 팔로우의 『사파타』와 크리스티나 리베라 가르사의 『아무도 내가 우는 것을 보지 못하리』(Nadie me verá llorar)에 주목했다. 리베라 가르사의 소설에는 “비범한 소설”, “아름답고 정확한 산문”, “호세 레부엘타스 이후 멕시코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혁명에서 이론과 행동 간의 비극적 선택과 정신적 분열을 묘사한” 작품 등등, 총애하던 볼피에게도 사용하지 않은 찬사를 보낸다.

‘발견’, ‘두 세계의 만남’, ‘정복’, ‘아메리카의 발명’ 등의 용어가 콜럼버스의 ‘신대륙’ 도착 500주년을 맞아 쟁점이 되었을 때, 푸엔테스는 이 모든 용어를 비판한다. “우리는 다인종, 다문화 대륙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⁷⁾ 나는 ‘라틴아메리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이 용어는 19세기에 프랑스인이 아메리카에 개입하려고 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신 ‘인도-아프로-이베로아메리카’라는 가장 완벽한 용어를 쓰려 한다.” 그렇지만 2년 후인 1992년 출판된 『라틴아메리카 역사』(El espejo enterrado)에서는 제16장 제목으로 ‘라틴아메리카’를 사용하고, 본문에서 “인도아프로이베로아메리카에서 창조된 문화만큼 지속성을 지닌 문화는 세계에서 별로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자신이 제안한 용어를 포함시킨다. 그러나 푸엔테스의 완벽한 용어는 추종자를 얻지 못했다.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의 새로운 소설’인가 아니면 ‘뵘’인가?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뵘’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고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이 현상의 촉진자 중 한 사람이었다. 이 현상을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의 새로운 소설’이라고 최초로 명명한 사람이 그였다. 학계 일부 인사는 이 제목의 평론집을 고대하고 있었다. 책의 일부가 1964년 7월 29일에 발간된 『문화 속의 멕시코』(México en la cultura)지에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의 새로

7) 1990년에 출판된 『용감한 신세계』(Valiente mundo nuevo)를 말함.

운 소설』이라는 제목으로 실렸기 때문이다. 1965년 후안 러브릭은 스페인 어권 아메리카 소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불빛을 밝혀준 푸엔테스의 선구적 연구를 부각시킨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이 학자는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의 새로운 소설에 대한 긴 연구에서 카를로스 푸엔테스처럼 탁월한 소설가는”, “우리는 카를로스 푸엔테스에게 동의한다”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푸엔테스의 말에 신뢰를 보낸다. 1969년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의 새로운 소설』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은 무엇보다도 후안 룰포, 펠리스베르토 에르난데스, 마세도니오 페르난데스, 로베르토 아를트 같은 창시자들을 인정한다. 그리고 새로운 소설이 등장한 문학적 순간을 역사적 책무로 정의한다. 이 신념은 계속 유지되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푸엔테스는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문학은 활력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 문학은 여전히 우리 역사가 말하지 않은 모든 것을 말하고, 역사가 침묵시킨 모든 것을 복원하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푸엔테스는 전문 작가의 이미지를 창조한다. 이는 많은 비판자들 사이에서 악명을 떨쳤다. 일관된 수준의 작품을 쓸 수 없는 불안정적인 재능의 야심가로 비친 것이었다. 1966년에 루이스 하스가 그렇게 묘사한다. 출판인들은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던 문인들과 이제는 협상을 벌여야 했다. “돈이 당신에게 별로 중요한 것이 정말 아니라면 말해보시오. 궁금해서 그렇소. 인터뷰하는 데 왜 내게 1,000달러를 받았소?” 이 말에 푸엔테스는 “내게는 아주 지랄 맞은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받는 거예요. 나는 그들 손아귀에 있고요.”

당대의 다른 작가들은 푸엔테스를 주역으로 인정하지만, 그가 제안한 명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세 도노소는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1960년대 스페인어권 아메리카 소설의 국제화에 의식이 있었던 최초의 적극적인 에이전트”이며, “‘봄’의 촉진제 중 하나였다”라고 말한다. 푸엔테스는 인상적인 인물인데, 왜냐하면 “모든 소

설을 다 읽었고 [...] 모든 그림과 세계의 모든 수도의 모든 영화를 다 보았고, [...] 또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에든 그 후에도 푸엔테스의 제안은 반향이 없었다.

부당한 망각

도노소에 따르면, 푸엔테스라는 이름은 “좋은 나쁜 [...] 그의 현실과 결합되어 있고, 또 그의 ‘마피아’와 그의 ‘사단’에 얽힌 전설과도 결합되어 있다.” ‘마피아’로 혹은 ‘사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참한 사부와 친구들을 살펴보면, 1940년대에는 알폰소 레예스, 1950년에는 옥타비오 파스, 1959년에는 루이스 부뉴엘과 우정을 나눈다. 1959년은 리타 마세도와 결혼한 해이기도 하다. 1960년대에는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의 새로운 소설’로 승화된 일련의 우정을 맺는다. 1960년에는 알레호 카르펜티에르, 기예르모 카브레라 인판테, 로베르토 페르난데스 레파마르, 1961년에는 호세 에밀리오 파체코와 카를로스 몬시바이스, 1963년에는 후안 고이티솔로, 훌리오 코르타사르,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1964년에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1966년에는 호르헤 에드와르즈이다.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옥타비오 파스, 페르난도 베니테스, 파블로 네루다, 가르시아 마르케스, 카브레라 인판테, 고이티솔로와 함께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체가 된 것처럼 느낀다.” 구스타보 사인스는 푸엔테스가 “많은 스페인어권 아메리카 작가들을 위해 시장을 여는 창끝”이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의미심장한 일화가 하나 있다.

호세 도노소는 1962년 콘셉시온 대학에서 열린 지식인 대회에서 푸엔테스를 알게 되었다. 푸엔테스는 소설 『대관식』(Coronación) 한 권을 요청해 훑어보고 마음에 들어 한다. 이듬해 도노소에게 보낸 편지에서 푸엔테스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 소설이 더 많이 알려지지 않고 번역되지 않

왔다는 사실이 부조리하게 생각되네. 뉴욕의 내 에이전트인 칼 D. 브랜트에게 보내주게. 나도 편지해서 그 소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볼 테니까.” 얼마 후 좋은 소식이 날아든다. “어이, 친구 축하하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출판사 알프레드 크노프가 자네를 받아줬어.” 하지만 도노소는 1972년에 이에 대해 증언했다. 따라서 앙헬 라마가 이 일을 알았는지 알 수 없다(그렇다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1964년 라마는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어조로 푸엔테스를 언급하면서 바로 도노소와 비교한다. “멕시코의 ‘폰도 데 쿨투라 에코노미카’ 출판사는 젊은 문인 중 하나인 카를로스 푸엔테스(현재 35세)를 확실히 대중에게 알렸다. 반면 지그재그 출판사는 『대관식』의 저자인 칠레의 호세 도노소처럼 대단히 재능 있는 소설가를 대륙 차원에서는 알리지 못했다. 이미 미국에 영어로 번역, 출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읽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은 [...]” 무엇이 부조리하다는 것일까? 푸엔테스가 칠레 작가의 ‘대단히 재능 있는’ 도노소 수준이 못 되는 데도 그렇게 확산된 것이 부조리하다는 건가?

앙헬 라마는 유명한 글 「붐에 대한 조망」(El boom en perspectiva, 1981)에서 마케팅 용어인 ‘붐’이라는 어휘를 혹독하게 비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마는 글 제목부터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마는 되도록이면 푸엔테스를 무시한다. 그리고 푸엔테스를 언급할 때는 소설가가 아니라 시인 옥타비오 파스와 함께 언급하는 극단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다. “그 독자들은 남쪽에서는 에르네스토 사바토나 홀리오 코르타사르의 소설로 성체 배령을 받았고, 북쪽에서는 파스의 권위나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소설로 성체 배령을 받았다.” 그런 현상이 확산되게 된 제 조건에 대해서 라마는, 토마스 엘로이 마르티네스의 1967년 글 「아메리카: 위대한 소설」이 “새로운 서사의 확산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여기는데, 아마도 우리가 앞서 인용한 푸엔테스의 1964년 글을⁸⁾ 알지 못한 것 같다. ‘붐’의 정의를

8) 『문화 속의 멕시코』(México en la cultura)지에 실린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의 새로

위해 라마는 문인들의 의견을 이용한다. 1971년 바르가스 요사의 글, 1972년 홀리오 코르타사르의 견해, 여기에다 1972년의 도노소의 “맛깔 나는 책”인 『봄의 개인사』(Historia personal del Boom) 등이다. 그러나 이 모든 글보다 앞서 나온 푸엔테스의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의 새로운 소설』에게는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푸엔테스는 마지막 평론서에서 “봄 덕분에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소설이 있다”는 단언으로 보복을 하는 듯하다.

자신을 헐뜯던 사람들이 죽고 없으니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모든 것을 자기방식대로 명명할 자유, 자신의 정의와 명칭이 영속되도록 용어와 시대를 정리할 자유를 얻은 것이다.



1979년 하버드대학교에서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왼쪽)와 카를로스 푸엔테스(오른쪽)

카를로스 푸엔테스인가, 바르가스 요사인가?

진실과 거짓. 1970년대에 푸엔테스는 바르가스 요사의 문학작품 수준을 거리낌 없이 인정한다. “내가 보기에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위대한 정치소설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카테드랄 주점의 대화』(Conversaciones en la Catedral)이다”라고 말한다. 바르가스 요사와 푸엔테스 사이에는 일화가 하나 있다. 아우구스토 몬테로소에 따르면, “1968년 초,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가 런던에서 내게 편지를 보냈다.” 용건은 ‘스페인어권 아메리카의 독재자에 대한 단편집’을 엮자는 제안이었다. 카르펜티에르는 마차도, 푸엔테스는 산타 안나, 도노소는 멜가레호,

운 소설」을 가리킨다—옮긴이.

코르타사르는 페론, 로아 바스토스는 프란시아 박사, 바르가스 요사는 산체스 세로, 몬테로소는 소모사를 맡아서 쓰자는 것이었다. 몬테로소는 “며칠 뒤에 고맙지만 쓰지 못하겠노라고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에게 답했다”고 한다. 푸엔테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위대한 소설』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 “1967년 가을, 런던에서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를 만나” 라틴아메리카의 독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독재자들은 “육화될 권리를 주장하면서 런던의 주점에” 유명처럼 나타났다. 정확히 어느 해의 일인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두 사람 얘기가 다르다. 푸엔테스는 “바르가스 요사와 나는” 독재에 대한 “짧은 소설”을 “10여 명의 라틴아메리카 작가에게 요청했습니다.”라고 말한다. 로아 바스토스, 코르타사르, 가르시아 마르케스, 도노소, 에드와르즈가 포함되어 있었다. 바르가스 요사는 듀오가 아니라 솔로이며, 장르도 축소했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단편이었다고 말했으니 말이다. 바르가스 요사와 푸엔테스 두 사람의 아이디어였을까? 아니면 둘 중 한 사람의 아이디어였을까?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제3의 증인이 필요하다.

토마스 엘로이 마르티네스는 이러한 작품 기획은 그보다 더 오래 전 일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푸엔테스를 알게 되었을 때라는 것이다. 푸엔테스가 “칠레의 콘셉시온 대학이 개최한 지식인 대회에서 돌아온 1962년 봄”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푸엔테스에게서 “독재자에 대한 여러 권의 소설 기획을 들었다. 이제 막 라틴아메리카 문학에 데뷔한 젊은이들이 쓴다는 것이었다.” 엘로이 마르티네스는 푸엔테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로아 바스토스가 프란시아 박사를 맡고, 비앙코는 로사스나 페론을 맡으라고 설득했다고 기억한다. “푸엔테스는 모든 곳에서 일당을 모았다.” 이미 칠레에서 도노소는 발마세다를, 에드와르즈는 멜가레호를 맡으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그 자신도 독재자 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타 안나를 다룰 장편 소설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했다.” 진실과 진실에서 삭제된 부분이 명백히 드러난다.

노벨문학상을 향한 달음박질

“나는 천부적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는 없다는 사실도 안다. 내게는 규율이 있을 뿐이다. 자리에 앉아 일을 한다.” 푸엔테스는 상을 좋아했을까? 수많은 왕관을 썼지만 노벨문학상은 결국 받지 못했다. 파스나 에드와르즈와의 일화와 같은 공개적인 대립은 없었으나, 가르시아 마르케스와 우정이 돈독해지면서 바르가스 요사와 소원해졌다. 어쩌면 제때 상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가령, 푸엔테스는 1967년 『허물벗기』로 ‘비블리오테카 브레베’ 상을 받았는데, 바르가스 요사는 1963년 『도시와 개』(La ciudad y los perros)로 받았다. 1977년 『우리들의 대지』로 푸엔테스가 받은 로물로 가예고 상의 경우, 바르가스 요사는 1967년 『녹색의 집』(La casa verde)으로 받았다. ‘아스투리아스 황태자’ 상은 1994년에 받는데, 바르가스 요사는 이미 1986년에 받았다. 단 하나 세르반테스 상만은 바르가스 요사보다 7년 앞선 1987년에 푸엔테스의 손에 들어온다.

세르반테스 상을 받은 뒤 사람들은 푸엔테스에게 노벨문학상의 수상가능성을 물었다. 그때 “나는 벌써 받았습시다” 하고 말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푸엔테스의 절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수상한 일을 가리킨 것이었다. 푸엔테스에게 상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다음은 그의 말이다. “글쎄요. 상과 무관하게 할 일을 했을 뿐, 그 이상의 일을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지금 막 새로운 상을 받았습시다. 6월 1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수상할 겁니다. 라티니다드 상이라고 처음 제정된 상입니다. 프랑스 문학아카데미와 브라질 문학아카데미가 ‘라틴 문명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 내가 라틴 문명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정하면, 나로서는 반갑습시다.”

푸엔테스는 죽은 이후 우뚝 서게 된다. 멕시코 문화부가 노벨문학상 다음으로 상금이 많은(25만달러) 카를로스 푸엔테스 상 제정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첫 수상자는 그의 말없는 라이벌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로, 멕



2012년 11월 21일 멕시코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오른쪽)으로부터 ‘카를로스 푸엔테스’ 상을 수상한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왼쪽).

시코 작가를 기리는 이 행사에서 2012년 11월 감사의 말을 해야 했다.

하지만 푸엔테스에 대한 바르가스 요사의 입장을 사악하게 볼 수는 없다. 바르가스 요사는 「권위주의 페스트」(La peste del autoritarismo)라는 글에서 “크라우제의 대단히 신랄한 카를로스 푸엔테스 비판”을 검토하면서 푸엔테스가 이념적으로 모호하다는 크라우제의 비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푸엔테스가 별로 멕시코적이지 않고, 이 점이 그의 작품에 반영된다는 비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문학은 국가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크라우제의 독설에서 절묘하게 꼬집어낸 다음과 같은 예찬을 덧붙인다.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책을 읽었을 때 질투가 난 적이 있었다. 내 책에 쏟아진 쓰레기 같은 반론 중에서 그렇게 신중하고 꼼꼼한 독서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기 구분의 오류와 푸엔테스 작품

앙헬 라마는 봄의 유효 기간이 1960년대부터 1972년까지라고 말하고, 봄의 시작 연도로는 1959년 발표된 홀리오 코르타사르의 「추적자」(*El perseguidor*)를 포함시키고자 1년을 더 앞당긴다. 1960년대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무슨 작품이 봄에 들어갈 수 있을까? 1962년의 『아르테미오 크루스의 죽음』일까? 물론 훌륭한 소설이다. 그러나 600쪽에 달하는 『팔방놀이』(*Rayuela*), 500쪽에 가까운 『백년의 고독』(*Cien años de soledad*), 500쪽의 『녹색의 집』과 700쪽이 넘는 『카테드랄 주점에서의 대화』에 비하면 푸엔테스의 소설은 절반 분량이다. 『성스러운 지대』(*Zona sagrada*, 1967)는 그보다 더 짧고 생각보다 반향도 없었다. 『허물벗기』(1967)는 길지만 실험정신이 부족했다. 앙헬 라마가 선택한 1960년대보다 2년 전에 발표한 『세상에서 가장 맑은 지역』이야말로 앞서 언급한 작가들의 작품처럼 길고 대단히 수준이 높다. 푸엔테스의 회고에 의하면, “정말 많이 비판 받고, 천대 받은 소설이었다. 후에 고전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아니었다.” 구스타보 사인스는 서평에 「어느 발칙한 소설에 대한 찬반(贊反)」(*El pro y el contra de una escandalosa novela*)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여러 언어로 번역된 푸엔테스 책[『세상에서 가장 맑은 지역』]의 모든 판본을 똑바로 쌓으면 3미터 이상”이라고 말한다. 푸엔테스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그 책이 출간되었을 때, 모든 비평이 “읽히지 않는 소설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전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사적이라 오직 저자에게만 관심을 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랬다. ‘좋아, 그 말이 맞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판매되는 소설이 되었다.”

호세 도노소는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멕시코 작가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소설 『세상에서 가장 맑은 지역』이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작품을 읽었을 때, 문학이 다른 차원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앙헬 라마는 비록 그 소설을 1961년에 읽었지만 봄 ‘시작’ 전인 1958년에 출간되

었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토마스 엘로이 마르티네스는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1962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우리는 막 『아우라』를 읽었고, 『세상에서 가장 맑은 지역』을 이미 다시 읽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젊은 작가가 그렇게 무르고,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의 진짜 주인 같고, 그와 동시에 그렇게 현명하고, 그렇게 날렵한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불가능해 보였다.” 에미르 로드리게스 모네갈은 1963년에 이렇게 평했다. “푸엔테스의 작품에도 결점은 있다. 비평은 이미, 특히 멕시코에서 몇 가지를 지적했다. 그렇게 젊고(겨우 34세이다), 그렇게 왕성하고 야심차게 많이 쓴 작가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결점이다. [...]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푸엔테스가 이미 정복한 것은 조국의 현실과 굳건히 마주하는 자세이다.”

앙헬 라마는 최종적으로는, 세상이 갈채를 보내는 푸엔테스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고 코르타사르, 가르시아 마르케스, 바르가스 요사와 함께 붐의 다섯 개 의자 중 하나를 수여한다.⁹⁾ 수준 높은 작품은 언젠가 인정을 받기 마련이다. 이미 1967년에 미국의 비평은 이 소설을 “엄청나고 즉각적인 성공”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푸엔테스의 이 첫 번째 소설에 대한 최고의 비평은 바르가스 요사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바로 노벨문학상 수상 리셉션에서였다. “내 작품 『도시와 개』가 첫 번째 붐 소설이었다고 말하지만, 이보다 4년 앞선 1958년에 출판된 『세상에서 가장 맑은 지역』에게 그 자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멕시코인인가?

푸엔테스의 사망은 그의 태생을 확인시켜 주었다. 스페인어권 문학의 대가로 인정받아 온 작가로서는 의미심장한 날짜인 2012년 5월 15일¹⁰⁾

9) 나머지 하나는 카르펜티에르, 도노소, 레사마 리마, 기마랑스 로사 등 후보가 여럿이다.

10) 5월 15일은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스승의 날이다.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장례식.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였다.

멕시코시티에서 서거했다. 푸엔테스에게 진정한 탄생은 죽음에 있다. 에세이와 작품에서 그렇게 말했고, 후대에 그렇게 기억될 것이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사람은 어느 나이에 이르면, 젊어지거나 망가진다.”라고 말했듯이, 푸엔테스는 자기 작품처럼 영원히 젊고 현재적일 것이다. 푸엔테스는 멕시코 사람만이 내지르고 느낄 수 있는 외침으로 비판적 유서를 마친다. “내가 멕시코와 멕시코 작가들에게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했다고 당연한 비난을 할 것이다.” 내 책에 “멕시코인이 많은 것은, 내가 멕시코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많이 읽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찌란 말인가! 멕시코가 유일한 조국인데.”

알폰소 레예스나 마세도니오 페르난데스의 지극히 짧은 작품을 옆두에 두면 제목도 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 카를로스 푸엔테스는 7편의 소설을 끝맺지 못한 셈이다. 만일 푸엔테스의 사랑하는 적이, 즉 죽음이 허락한다면, 우리는 사망 다음 주에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푸엔테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많이 일하고, 늘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발코니의 페데리코』라는 책을 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0주년의 춤』이라는 새로운 책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멕시코에서 쓰기 시작할 거예요.”

푸엔테스는 1973년 제임스 포트슨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트슨: [...] 당신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푸엔테스: 아,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잠들었다. 영원한 삶을 살고 있고, 아마도 계속 글을 쓰고 있을 것이다.

[우석균 옮김]

클라우디아 마시아스 데 윤(Claudia Macías de Yoon)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우석균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